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1)*}
-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

고 인 숙*·김 혜 연**

제주서중학교*·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Management and Problems in the Instruction of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

Ko, In-Sook*·Kim, Hye-Yeon**

Jeju seo middle school·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on management and problems in the instruction of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to sugges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schemes under 7th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perceived the first reason why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s being more unpopular is because the subject becomes not to include in the subjects of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the Universities.

Second, the teachers regarded the main problem in the present instruction of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der 7th curriculum as the incorporation of the subject betwee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amely, no relation and organization with two majors.

Third, which the teachers regarded as important task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ere to lesser the extra charges except instruction related work of the teachers, and to increase the supply of the teachers itself.

주제어 (Key Words) : 7차 교육과정(7th curriculum), 기술·가정(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1) 교신저자 : Ko In-suk, Jeju-seo middle school, third floor 291/100 Yeon-dong, Jeju, Korea
Tel : 064-747-0598, E-mail : is54321@empal.com

* 이 논문은 2003년도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 론

현재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육은 1998년에 도입된 제 7차 교육과정 내용을 따르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갖고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10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실과(기술·가정)를 5학년에서 10학년까지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등을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두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사·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도 내용의 양을 정선하고, 최저수준을 중심으로 교육수준을 적정화함으로써 체험적, 실천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 공통교과의 취지를 살려 내용의 구성이나 실습 주제의 선정, 삽화와 사진의 제시 등에 있어서 남녀의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고 성역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기술·가정 교과서의 신설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술·가정 교과서의 신설은 우선 기술, 가정 교과서의 정통성 시비와 함께 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자질도 문제시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기에 신설된 「기술·가정」교과의 담당교사 자격을 「기술·가정」전공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했었는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 걸음 물러서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기술·가정」전공, 「가정」전공이면서 「기술」부전공자, 「기술」전공이면서 「가정」부전공자 등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999년도부터 1차~2차 부전공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정 및 기술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거부하여 연수실시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짧은 부전공연수로 성격이 전혀 다른 교과를 가르친다면 수업은 질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은 치명

적인 학습권의 침해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하에서, 「기술·가정」교과의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 기술·가정과 교육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시수가 감축되고 교과 성격마저 실업교과로 바뀌는 경향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영세 소규모 학교 수가 많아 더욱 열악한 여건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술·가정과목의 시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과원 교사 수급문제로 교원 인사 등 타 교과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2002)에 따르면, 도내 가정과 교사 100명 중 기술·가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수는 89명이며, 나머지는 사회, 일본어, 전산 등 부전공 과목을 담당하거나 기관에 파견토록 함으로써 과원교사를 해결하고 있다.

89명이란 필요 인원에는 기술 및 가정과 교사가 함께 포함되는 관계로 그나마 가정전공자의 과원교사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좀더 자신감 있고 질적으로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가정과 교사들이 심지어 기술부전공 과목 연수까지 타의반으로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공교사들은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보충할 수 없는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교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충실한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멀어지고 입시제도에서 비중요과목으로 취급되는 등의 현실은 교원충원 뿐 아니라 담당 수업시수 부족으로 연결되어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제 6차 교육과정시기를 중심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술·가정교육의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조사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부분적인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 특유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제주도 내 기술·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지역을 대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 수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관련문헌고찰²⁾

1. 제 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제주도 교육청의 운영 여건

제 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 기술·가정교과의 배경

기술·가정교과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5~6학년까지는 실과로 2시간,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기술·가정으로 2·3·3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의 기술·산업 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교과의 형태를 빌린 병합의 형태로 두 개의 교과서를 하나로 합본된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교과과목을 10개로 제한한다는 총론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여 기술·가정을 교과명으로 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교과과가 성격상 통합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가'였다.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 체계가 통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두 교과과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상호 관련성이 밝혀진 뒤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교과는 두 교과과의 학문 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지도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병합하였고, 특히 일부분 통합이 가능한 부분만 통합하였다(교육부, 1999).

(2) 기술·가정 부전공 자격연수의 부당성

가) 기술·가정 부전공 과목연수의 문제

제 7차 교육과정 입안에 참여했던 교수진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도 통합이 아닌 병합 형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50 : 50으로 구성하였고, 현장

에서의 운영도 기술담당 교사는 기술영역을, 가정담당교사는 가정영역을 지도하는 것으로 입안 구성하였다.

나) 기형적인 부전공 연수 시간 책정

360시간의 기술·가정 부전공 자격연수의 부당성에 대해 전국의 기술교사, 가정교사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교육부는 급기야 애초 자신의 전공과목 10학점은 인정하고, 상대 과목을 180시간(1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겠다는 기이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만들어냈다. 1998~2001년 반 강압적으로 부전공연수가 실시된 일부 지역에서는 연수대상자들이 기술·가정이란 과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포기원을 내고 연수거부에 들어가자 연수 후 자격증 표시과목을 '기술·가정'과 '기술(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80시간을 받으면 '기술·가정'으로 자격증을 부여해주고 겨울에 연수를 180시간 더 받아 360시간을 받으면 '기술(가정)'을 표시해 준다고 제주도 장학사가 구두로 약속함). 말하자면 항의에 대한 변형된 형태의 연수가 실시된 셈이었다(고인숙, 2001).

이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관료들의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횡포이다. 또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운운하며 학생들이 자격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배울 권리가 있기에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갖추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격증을 위한 기형적인 부전공 연수'는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학습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최문형, 2000).

다) 타 교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상의 문제

2000년 교원연수 운영방향(2000)에서 제시한 통합 표시과목 표기에서 교육 관계자들은 기존의 '기술'과 '가정'을 병합한 '기술·가정'을 신설과목으로 해석하여 전국의 기술, 가정 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학, 사회인 경우는 현행의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공통과학, 물리"로, 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공통사회, 일반사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과목의 자격증

2)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에 실려있는 제 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정배경, 특징 및 성격 등은 지면 제한 등으로 생략하였다.

은 “공통과학” 과 “공통사회” 과목을 각각 담당할 수 있는 복수 자격증으로 간주하면서 부전공 자격없이 그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시·도 재량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주도 교육청에도 ‘2003년 8월’에 공통과학, 공통사회 부전공 과목연수를 실시한다는 공문이 일선학교에 전달된 상태에 있다.

(3) 기술·가정교과의 존폐위기에 대한 문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공통기본교과에 포함되는 고 1(10학년)을 제외한 고교 2, 3학년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 교육과정이 실행되는데, ‘기술·가정’과목은 대학 입시에서 제외된 과목이기에 선택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요자가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기술 교사나 가정과 교사들은 가르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파견교사로 남게 되어 본의 아니게 여러 기관(탐라교육원, 학생 문화원, 교육청 등)으로 파견교사가 되어 발령되어진다. 2~3년 간을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학교의 교단에 서게 되면 수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학문적 체계와 존립의 의미마저 불분명한 ‘기술·가정’ 과목은 우리 모두가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7~10학년에서도 외면 당할 위험이 있고, 교과와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학문적 배경도 다르고, 유사교과도 아닌 ‘기술’과 ‘가정’이 하나로 묶여졌던 이유는 12개 교과 중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통합되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이런 결정은 통합의 내적 논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최문형, 2000).

이상과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 교과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함으로써 교과의 시행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사 양성에서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관련변수의 고찰

지금까지 가정과목의 교과과정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기술·가정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을 통해 파악되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가정과목의 통합운영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을 제시하는 실태분석에 그 초점을 두

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를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6차 교육과정시기의 연구들 역시 제 7차 교육과정시기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술·가정과목의 통합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숙(1991)은 서울시 13개교, 대전시 2개교, 충청남도 13개교 남녀공학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가정교사와 기술교사가 공동으로 영역별 분담지도(22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지도시 애로점에 대해서는 실습 운영의 곤란이 57.1%(16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실습실 및 학습 보조 자료의 부족이 28%, 입시 위주의 교과 운영과 실습의 소홀이 20%, 내용이 광범위함이 14.7%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기술교과와 가정 교과의 통합에 대해 각 단원간의 체계적인 연결이 부족하고 기존의 두 교과 내용을 단순히 축소 통합하였으며, 전담 교사 없이 영역별로 분리 지도 해야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순(1992)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수업형태는 전공 분야별로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승수(1993)의 연구는 100명의 기술교사와 기술·가정 통합 교과서를 채택하여 가르치는 70명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이 78.4%로 나타나 수업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지도시 어려움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실습 운영 곤란, 분야별 시간 배정, 시수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한 비전공 분야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술·가정교과 통합 형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교사들은 혼자서 전담하여 지도하기 위한 재교육을 원치 않거나 단기간의 연수로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제 7차 교육과정시기의 몇몇 연구결과 역시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곽노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사 전문성 문제, 과원 교사 문제, 교과 지도 교사의 자격 문제, 교과 지도 방법의 문제 순으로 교과 운영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것은 비전공 영역에 대한 지도가 교직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자신의 교과지도와 관련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술·가정 교과 통합에 대해서는 특히, 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전공 영역을 지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껴 교사 만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비전공 영역의 내용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손순옥(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경우 자신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전공 자격 소지가 특히, 이론 지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의 운영면에서는 읍·면 소재지의 학교, 9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여자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 중 한 교과의 교사만 근무하는 학교일수록 전담 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개인 특성보다 학교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기술·가정교과의 통합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전공연수 등의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및 척도의 구성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변수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기술·가정교과의 일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술·가정교과의 문제는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과목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통합교과로 운영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종속변수를 갖는 연구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1 :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f (개인관련변수, 학교 및 교육과정관련변수,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

모델 2 : 기술·가정교과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f (개인관련변수, 학교 및 교육과정관련변수,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

모델 3 : 기술·가정교과 운영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f (개인관련변수, 학교 및 교육과정관련변수,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

각 연구모델의 설명변수는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명변수들은 교사 및 학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개인관련변수, 학교 및 교육과정 관련변수, 그리고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개인관련변수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전공, 거주지를 포함시켰으며, 학교 및 교육과정관련 변수에는 재직하고 있는 학급 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시간, 부전공 과목 연수 경험과 취득 여부, 취득 교과목, 만족감, 횟수 등 부전공과 관련한 변수를 포함시켰다.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에는 기술·가정 교과 운영, 8차 교과과정 개편시 개정 방향,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 이유,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 기술·가정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제 등을 포함시켰다.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변수와 관련된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들, 예를 들어 교사, 교과관련, 시간 관련 및 기타 등의 분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응답을 기초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전공 교사와 기술전공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제주도 가정과 교사 100명 중 기술·가정을 지도하고 있는 가정전공 교사 89명(제주도 교육청, 2003)과 기술·가정교과의 가정부분도 담당하고 있는 40명의 기술전공 교사를 조사대상자(139명)로 선정하였다.

2002년 12월 20일에서 26일까지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003년 1월 27일에서 2월 2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설문지를 이메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기술·가정교과의 비인기 과목 이유에 대한 인식(9)*	교사들의 주관적 인식(1-5)점***
기술·가정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9)	교사들의 주관적 인식(1-5)점
기술·가정교과 운영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인식(12)	교사들의 주관적 인식(1-5)점
개인관련 변수	
성 별	1=여성 0=남성
연 령	세
교육수준	1=대졸 0=석사 재학 이상
전공	1=가정계열 0=기술계열
거주지	1=제주시 0=기타
학교 및 교과과정관련 변수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급 수	총 학급 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시간	총 수업시간
부전공 과목 연수 경험	1=있음 0=없음
부전공 과목 취득 여부	1=취득 0=미취득
부전공 교과목	1=가정 2=기술 3=기타
부전공 연수 만족감	1=만족 3=보통 5=불만족
교육과정 연수경험 횟수	실제 연수 횟수
기술·가정 연수 필요 인식	1=네 0=아니오
기술·가정교과 운영관련 변수	
기술·가정 교과 운영방식	1=전담 지도 2=영역별 분담 3=기타
8차 교과과정 개편시 개정 방향에 대한 인식	1=분리 0=기타
적당한 수업담당 시간에 대한 인식(주당)	1=15시간이하 2=16시간 3=17시간 이상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도	교사들의 주관적 만족감(1-5점)***
비전공 교과 지도의 문제점	교사들의 주관적 문제인식(1-5점)***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 이유(9)	1=교과관련 요인 2=교과이외 요인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 문제점(9)	1=교과관련 요인 2=교과이외 요인
기술·가정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제(12)	1=교사관련 요인 2=교과관련 요인 3=교과시간 요인 4=교과관심 요인

* ()안의 숫자는 문항수,

***5점 척도 : 1=매우 그렇다, 3=보통, 5=전혀 그렇지 않다

일로 보내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부실 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10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기술·가정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기술·가정 교과 비인기 과목에 대한 인식, 효율적인 기술·가정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인식 등 세 개의 종속변수에 차이를 가져오는 독립변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

을 통해 분석하였다. 2문항 이상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내용에 따라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고 Cronbach's 값을 기초로 문항일치도를 파악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교사가 20.6%, 여자 교사가 79.4%로 여자 교사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주로 기술·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가정 교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33세에서 60세까지 있었으며 평균 연령이 46.9세로 주로 40대가 많았다. 교사들의 교육수준은 학사인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17.8%,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가 12.1%로 나타났다. 이는 손순옥(2002)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졸업이 62.7%로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사들의 전공은 가정교육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 및 공업, 수산업계열이 14.0%, 비사범계 가정계열이 13.1%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가정교사가 많았던 것과 비례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의 평균 교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

(빈도, %, 평균, 표준편차, N=107)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2	20.6
	여	85	79.4
연령	33-44세	33	30.8
	45-49세	38	35.6
	50-60세	36	33.6
본인교육수준	학사	74	69.2
	석사과정 재학	13	12.1
	석사	19	17.8
	기타	1	0.9
전공	가정교육	66	61.7
	비사범계가정계열	14	13.1
	기술교육	7	6.5
	농업,공업,수산업계열	15	14.0
	기타	5	4.7
거주지역	제주시	87	81.3
	기타	20	18.7
학교 소재지	제주시	59	55.1
	기타	48	44.9
학교유형	여중	25	23.4
	남중	11	10.3
	남녀공학(중)	50	46.7
	여고	10	9.3
	남녀공학(고)	11	10.3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교직경력(월)		247.35	77.00
재직 학교 학급수	1학년	7.22	3.03
	2학년	7.15	3.06
	3학년	7.38	3.28
현재 수업 담당 학급수	1학년	5.57	2.97
	2학년	3.83	2.59
	3학년	4.65	2.69
	특수학급	2.67	0.58
현재 맡고 있는 총 수업수(주)		16.82	2.98

직경력은 247.35개월로 약 20년 정도로 나타나 손순옥(2002)의 연구대상의 교직경력 14.9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 가정과나 기술과 교사의 신규 임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총 수업 시수는 16.82시간으로 나타났다. 손순옥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나 김승수의 연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2. 교육과정관련 실태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부전공과 관련해 조사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교육과정 개편시 교육과정관련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6.0%로 대부분의 교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과정 개편시 70.1%가 연수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은 91.6%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전공과목 연수를 받았고, 부전공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순옥의 연구(2002)에서 부전공 자격 취득 교사가 23.9%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전공 교과목으로는 기술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과목과 사회과목이 각 14.4%, 기술·가정과목이 4.7%로 나타났

<표 3> 교육과정 및 부전공관련 실태

(빈도, %, 평균, 표준편차, N=107)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교육과정 개편시 교육과정 연수 필요성	필요	92	86.0
	불필요	15	14.0
교육과정 개편시 연수 경험	유	75	70.1
	무	32	29.9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	유	98	91.6
	무	9	5.4
현재 기술·가정 부전공과목 연수 필요인식	필요	26	24.3
	불필요	77	72.0
현재 가정(기술) 부전공과목 연수 문제점*	단편적 지식 전달	72	36.9
	획일적 교육	54	27.7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38	19.5
	실험·실습 부족	31	15.9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희망	16	15.0
	미희망	91	85.0
부전공과목 연수시 희망 교육내용	교수·학습매체적용	7	6.5
	직접 실험 및 실습	22	20.6
	학급경영, 생활지도	4	3.7
	새로운 교과내용	18	16.8
	다양한 교육방법	20	18.7
부전공과목 취득 여부	취득	98	91.6
	미취득	9	8.4
부전공 교과목	가정	14	14.4
	기술	47	48.5
	기술·가정	5	5.2
	사회	14	14.4
	기타	17	17.4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1-5점)		3.11	0.85
교육과정 연수경험 횟 수(회)		1.85	1.83
부전공과목 연수가 교과지도시 도움 정도(5-40점)		26.10	10.66
비전공 영역의 지도 정도(1-5점)		3.55	0.88

* : 복수응답

** :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 수치에 차이가 있음

다. 기타 과목으로는 일본어(4.1%)와 한문(1.0%) 등의 외국어과목과 컴퓨터(4.1%)와 환경(1.0%) 조리(7.2%)등의 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술·가정 부전공과목 연수의 필요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72.0%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기술·가정 부전공과목 연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전공과목 연수에 대한 만족감이 3.11점으로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수의 연구(1993)에서도 기술(또는 가정)과 연수의 효과를 보면 3.9%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수 내용 및 방법, 연수의 필요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술·가정 부전공과목 연수의 문제점으로는 단편적 지식전달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획일적 교육이 16.8%,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11.8%, 교과과정에 맞는 실험·실습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3.7%로 나타났다. 앞으로 부전공과목 연수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분야별로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실험 및 실습을 해보고 싶다

가 20.6%,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와 새로운 교과내용에 대한 연수가 각각 18.7%와 16.8%로 나타났다.

부전공과목 연수가 교과지도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26.1점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아닌 영역에 대한 지도에 대해 3.55점으로 약간의 곤란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전공자격을 소지한 경우 자신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던 손순옥의 연구(2002)와는 달리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이 부전공 자격 연수가 교과 지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박노선의 연구(2001)결과와 유사하였다.

3. 기술·가정 교과 운영 실태

1) 기술·가정 교과 운영 실태

기술·가정교과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 운영은 한

<표 4> 기술·가정교과 운영실태

(빈도, %, 평균, 표준편차, N=107)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기술·가정 교과 운영	한명의 교사가 전담 지도	62	58.5
	가정교사와 기술교사 영역별 분담	26	24.5
	전담, 분담 지도 병행	11	10.4
	기타	7	6.6
기술·가정 교과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	영역별 분담 지도	87	81.3
	비전공 부전공 취득 후 전담 지도	10	9.3
	기술·가정 부전공 취득 후 전담 지도	10	9.3
8차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 개정 방향에 대한 인식	기술과 가정으로 분리	68	64.8
	통합하되 교과 내용 재구성, 전담	19	18.1
	통합하되 영역별 팀티칭	18	17.1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도(1-5점)**	교과운영방식	3.31	0.88
	교과 내용	3.11	0.79
	교과 시수	3.34	0.80
	교과 지도 참고 자료	3.09	0.75
비전공 교과 지도의 문제점(1-5점)	교과 관련	2.59	0.82
	학생 관련	2.64	1.00
	교사 관련	2.40	0.94
적당한 수업담당 시간에 대한 인식(주당)		14.53	3.84
기술·가정교과 적당한 수업시수(주당)	1학년	3.60	2.92
	2학년	3.64	2.59
	3학년	3.59	2.53

* :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 수치가 차이가 있음

**5점 척도 : 1=매우 만족, 3=보통, 5=매우 불만족

명의 교사가 전담하여 지도하는 경우가 58.5%로 가장 많으며, 가정교사와 기술교사가 영역별로 분담하는 경우가 24.5%, 전담지도와 분담지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10.4%로 나타났다. 손순옥의 연구(2002)에서도 전담지도가 79.6%로 영역별 분담지도 20.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기술·가정 교과와 바람직한 운영방법은 영역별로 분담하여 지도한다가 81.3%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각 전공에 대해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8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기술과 가정으로 분리해야 한다가 64.8%로 나타났으며, 통합하되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담한다가 18.1%, 통합하되 영역별로 팀티칭 및 분담 지도가 17.1%로 나타났다. 이는 백일순의 연구(1992)에서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해 지도 영역의 포기나 침범 없이 각기 전공 영역별로 협동하여 지도할 것을 권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현행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과 시수에 대한 응답이 3.34점으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교과 시수의 부족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가 대폭 감소된 데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교과 시수의 감소로 인해 전국적인 가정과목의 과원교사가 문제가 되었고, 제주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기술·가정교과의 적당한 수업 시수는 1, 2, 3학년 각각 주당 평균 약 3.6시간이라고 응답하여, 교사들은 현재 시수에 비해 기술·가정교과의 수업 시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적당한 수업담당 시간은 주당 평균 14.5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교사들의 인식은 교과 운영방식이 3.31점, 교과 내용 3.11점, 교과 지도 참고자료가 3.09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행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인애(1990)의 연구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내용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불만족하였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전공 교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교사 관련이 2.40점, 교과 관련이 2.59점, 학생관련 2.64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흥미 저하보다 교사 자신의 비전공 영역에 대한 지식부족이나

자신감 결여를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문제가 비전공 영역의 기능과 지식부족으로 나타난 손순옥(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2) 기술·가정교사의 지도시 애로사항

(1) 가정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 실태

가정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과 교사는 기술·가정 교과와 기계부분 실기가 4.24점으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이론과 수업매체 개발도 각 4.05점으로 기계부분(3.95점) 지도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기·에너지가 3.58점이었으며, 재료부분이 3.25점으로 나타났다.

교과활동 면에서는 대부분이 비슷한 정도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매체를 개발하는 항목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 실태

한편 기술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술과 교사는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부분의 실기가 3.77점, 이론이 3.68점, 수업매체 개발이 3.27점, 수행평가와 실생활 연관 활동이 3.18점으로 식생활 관련 부분을 지도시 가장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의생활 부분 실기가 3.64점, 의생활 이론이 3.32점으로 나타나, 식생활부분과 의생활 부분 지도를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술과 교사가 일반 이론부분 보다는 실기와 관련된 부분의 지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가정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

교과 내용	이론		실기		수행평가		수업매체 개발		실생활 연관 활동		교과서 수록 문제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족생활	1.72	0.93	2.06	1.02	2.02	0.96	2.14	0.98	1.81	0.96	1.98	1.02	1.95	0.80
생활자원, 환경	1.87	0.91	2.04	0.99	2.08	0.99	2.13	0.95	1.99	0.98	1.99	0.94	2.02	0.85
소비생활	1.78	0.82	2.11	1.06	1.94	0.97	2.05	0.97	1.92	0.98	2.19	1.03	2.00	0.84
의생활	1.86	1.07	2.05	1.17	2.09	1.14	2.21	1.08	1.95	1.09	2.02	0.98	2.03	0.95
식생활	1.80	1.09	1.95	1.13	1.98	1.22	2.04	1.09	1.74	0.86	1.82	0.94	1.89	0.96
주생활	1.92	0.99	2.11	1.07	2.11	1.11	2.24	0.97	1.96	0.93	2.00	0.95	2.05	0.88
전기, 에너지	3.73	1.01	4.01	1.01	3.55	1.18	3.82	1.03	3.28	1.07	3.11	1.09	3.58	0.81
컴퓨터	2.79	1.17	2.67	1.18	2.68	1.25	2.91	1.25	2.54	1.28	2.59	1.18	2.70	1.07
기계	4.05	1.00	4.24	0.85	3.88	1.19	4.05	1.05	3.83	1.08	3.62	1.21	3.95	0.85
제도	2.80	1.35	2.67	1.38	2.66	1.27	3.02	1.26	2.98	1.30	2.65	1.25	2.80	1.14
재료	3.27	1.28	3.44	1.12	3.26	1.18	3.27	1.22	3.10	1.16	3.15	1.20	3.25	1.06
직업, 진로교육	2.35	1.17	2.31	1.09	2.43	1.13	2.46	1.11	2.49	1.12	2.36	1.21	2.40	1.05
합 계	2.49	0.67	2.62	0.65	2.55	0.81	2.69	0.77	2.47	0.74	2.46	0.78	2.55	0.69

* 응답척도 : 1=지도가 전혀 힘들지 않다. 3=보통, 5=지도가 정말 힘들다

〈표 6〉기술과 교사의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사항

교과 내용	이론		실기		수행평가		수업매체 개발		실생활 연관 활동		교과서 수록 문제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족생활	2.73	1.28	2.68	1.25	2.86	1.39	2.64	1.39	2.45	0.86	2.36	1.18	2.62	1.04
생활자원, 환경	2.27	1.12	2.41	1.30	2.23	1.23	2.18	1.14	2.32	1.04	2.36	1.09	2.30	0.92
소비생활	1.95	0.84	2.77	1.34	2.41	1.33	2.36	1.14	2.27	1.12	2.45	1.10	2.37	0.94
의생활	3.32	1.39	3.64	1.47	3.23	1.57	3.27	1.28	3.00	1.20	3.00	1.35	3.24	1.16
식생활	3.68	1.32	3.77	1.41	3.18	1.62	3.27	1.20	3.18	1.14	3.27	1.20	3.39	1.14
주생활	2.55	1.30	2.45	1.34	2.36	1.29	2.36	1.18	2.23	1.02	2.18	1.05	2.36	0.98
전기, 에너지	1.68	1.09	1.73	1.08	1.86	1.17	1.68	1.09	1.73	1.03	1.95	1.34	1.77	1.03
컴퓨터	2.00	1.15	2.09	1.19	2.09	1.23	2.14	1.13	1.91	0.87	2.05	1.13	2.05	1.00
기계	1.86	1.13	1.86	1.25	1.91	1.19	1.95	1.21	2.00	1.20	1.91	1.23	1.92	1.10
제도	1.45	0.91	1.45	0.91	1.73	1.16	1.64	1.05	1.95	1.17	1.91	1.27	1.69	0.99
재료	1.55	0.96	1.73	1.28	1.77	1.19	1.82	1.05	1.91	0.87	1.68	0.99	1.74	0.95
직업, 진로교육	1.86	1.04	2.00	1.15	2.23	1.15	2.14	1.17	2.09	0.87	2.27	1.32	2.10	0.99
합 계	2.24	0.64	2.38	0.77	2.32	0.93	2.29	0.72	2.25	0.66	2.28	0.86	2.30	0.70

* 응답척도 : 1=지도가 전혀 힘들지 않다. 3=보통, 5=지도가 정말 힘들다

〈표 7〉 기술·가정 과목의 비인기 취급에 대한 인식 실태

(평균, 표준편차, N=107)

순 항	평균	표준 편차
교과관련 요인	2.42	0.54
입시에서 주요과목이 아니다	1.72	0.75
복잡한 교과 내용	2.64	0.79
실기 및 실습보다 이론 위주 수업	2.40	0.87
교수 매체의 단조로움	2.93	0.88
교과이외 요인	2.08	0.59
학부모 및 학생들의 무관심	1.89	0.76
실업교과라는 인식(기능 중시)	1.87	0.76
실생활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	2.16	0.79
미래지향적이기보다 전근대적	2.18	0.86
성 고정관념적 과목	2.30	0.95
전체	2.23	0.50

* 응답척도 : 1=매우 그렇다, 3=보통, 5=전혀 그렇지 않다

4. 연구문제의 분석

1) 기술·가정 과목의 비인기 과목 취급에 대한 분석

(1) 기술·가정 과목의 비인기 과목 취급에 대한 인식 실태

기술·가정 과목이 비인기 취급에 대한 인식 실태는 〈표 7〉과 같다.

기술·가정 교과가 비인기 과목인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과관련 요인이 2.42점, 교과이외 요인이 2.08점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시에서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 1.72점으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무엇보다 입시과목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실업교과라는 인식이 1.87점, 학부모 및 학생들의 무관심이 1.89점,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2.16점, 미래지향적이기보다 전근대적이다가 2.18점으로 나타나 과목 자체의 이미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기술·가정 과목의 비인기 취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

교사들의 특성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연령,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 1주일 담당 수업 시간,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1주일에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50세 이상 집단보다는 44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재직학교의 학급수가 25학급 이하인 경우, 담당 수업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 부전공과목 연수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를 15시간 이하로 생각하는 경우에 기술·가정 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받는 이유에 대해 교과관련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이외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 전공,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 1주일 담당 수업시간, 부전공 취득 과목, 기술·가정교과 운영 실태, 1주일에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가정계열 전공인 경우, 재직하고 있는 학급수가 13학급 이하인 경우, 담당 수업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 부전공 취득 과목이 기술이나 기타 과목인 경우, 기술·가정 교과 운영이 기타인 경우,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가 15시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술·가정 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받는 이유에 대해 교과 이외의 요인

〈표 8〉 기술·가정 교과의 비인기 과목 취급에 대한 인식 차이

변 수		빈도	교과관련 요인		교과이외 요인	
			평균	DMR	평균	DMR
연령	44세 이하	33	9.24	B	9.85	A
	45-49세	38	10.71	A	10.76	A
	50세 이상	36	9.03	B	10.50	A
F값			6.56***		0.31	
성별	남	22	9.68		11.73	
	여	85	9.69		10.05	
T값			0.02		2.43**	
교육수준	대졸	74	9.59		10.61	
	석사 재학 이상	33	9.94		9.91	
T값			0.69		1.28	
전공	가정계열	80	9.68		9.95	
	기술계열	27	9.74		11.70	
T값			0.14		2.75***	
재직학교 학급 수	13학급 이하	30	9.60	A	9.50	B
	14-25학급	29	9.21	A	10.59	AB
	26학급 이상	48	10.04	A	10.83	A
F값			3.61*		2.32+	
담당 수업시간(1주일)	14시간 이하	13	9.08	A	9.31	B
	15-18시간	66	9.97	A	10.89	A
	19시간 이상	28	9.32	A	9.71	AB
F값			4.09**		7.66***	
부전공 취득 과목	가정	14	9.64	A	12.07	A
	기술	47	9.53	A	10.06	B
	기타	46	9.87	A	10.22	B
F값			1.08		3.79**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만족	22	10.50	A	10.82	A
	보통	53	9.45	B	9.87	A
	불만족	32	9.53	B	10.97	A
F값			3.61*		0.97	
기술·가정 교과 운영	한 명 교사 전담	62	9.65	A	10.32	B
	영역별 분담	26	10.19	A	11.69	A
	기타	19	9.16	A	8.84	C
F값			1.11		4.26**	
적당한 수업 담당 시간에 대한 인식(주당)	15시간 이하	50	9.22	B	9.56	B
	16시간	39	10.33	A	10.87	A
	17시간 이상	18	9.61	AB	11.67	A
F값			4.39**		4.87***	

+p<.10 *p<.05 **p<.01 ***p<.001

〈표 9〉 기술·가정 교과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
(평균, 표준편차, N=107)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교과관련 요인	2.07	0.59
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병합	1.89	0.78
두 교과의 내용 구성에 연관성, 체계성이 없음	1.94	0.77
각 교과의 교사 및 전문가 의견 미반영	2.34	0.79
전공 이외 분야 지도	2.08	0.87
교과이외 요인	2.64	0.50
현실에 맞지 않는 교과 내용	2.60	0.70
교사자질	2.87	0.88
지도 교재 및 자료 부족	2.78	1.82
학생들의 관심 부족	2.51	0.77
학습 시간 부족(시수에 비해 학습내용이 많음)	2.47	1.01
전체	2.39	0.48

* 응답척도 : 1=가장 문제된다, 3=보통, 5=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문제점 분석

(1)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으로는 교과관련이 요인이 2.07점, 교과이외 요인이 2.64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병합이다 1.89점, 두 교과의 내용 구성에 연관성, 체계성이 없다 1.94점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공 이외의 분야 지도가 2.08점으로 나타나 교과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실습 설비 부족, 수업 시수 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한 손순옥의 연구(2002)결과와도 같다.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

교사들의 특성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들의 연령, 성

별, 전공,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과 취득여부, 기술·가정 부전공 연수의 바람직 정도, 기술·가정 교과 운영,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과 8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이 45-49세인 경우, 여성인 경우, 전공이 가정계열인 경우,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이 있고, 부전공 과목을 취득한 경우, 기술·가정 부전공 연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에 대해 교과관련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교과이외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연령, 성별, 전공,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기술·가정 교과 운영,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과 적당한 수업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 8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여성일 경우, 전공이 가정계열인 경우, 부전공과목 연수에 대해 보통의 만족감을 갖는 경우, 기술·가정 교과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적당한 수업담당 시수를 17시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8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분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기술·가정교과 운영의 문제점을 기타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표 10〉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차이

변 수		빈도	교과관련 요인		교과이외 요인	
			평균	DMR	평균	DMR
연령	44세 이하	33	8.15	AB	13.12	A
	45-49세	38	7.84	B	13.13	A
	50세 이상	36	8.86	A	13.42	A
F값			4.58**		2.08+	
성별	남	22	8.91		14.23	
	여	85	8.12		12.96	
T값			1.40+		2.17*	
교육수준	대졸	74	8.38		13.27	
	석사 재학 이상	33	8.06		13.12	
T값			0.64		0.29	
전공	가정계열	80	8.06		12.90	
	기술계열	27	8.93		14.19	
T값			1.65+		2.38**	
재직학교 학급 수	13학급 이하	30	7.67	A	13.03	A
	14-25학급	29	8.24	A	12.79	A
	26학급 이상	48	8.69	A	13.60	A
F값			0.72		1.27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	유	98	8.11		13.20	
	무	9	10.11		13.44	
T값			2.48**		0.17	
부전공과목 취득여부	취득	98	8.13		13.21	
	미취득	9	9.89		13.33	
T값			2.17**		0.09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만족	22	8.91	A	13.95	A
	보통	53	8.26	A	12.91	A
	불만족	32	7.88	A	13.25	A
F값			1.60		2.92*	
기술·가정 부전공 연수의 바람직 정도	바람직	26	8.96		14.08	
	바람직 하지 않음	77	8.18		13.09	
T값			1.48+		-0.89	
기술·가정 교과 운영방식	한 명 교사 전담	62	8.21	AB	13.15	A
	영역별 분담	26	9.15	A	13.50	A
	기타	19	7.32	B	13.11	A
F값			3.31*		1.80+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	만족(12점 이하)	42	8.93	A	14.40	A
	보통(13점)	21	9.43	A	13.24	B
	불만족(14점 이상)	44	7.11	B	12.09	C
F값			13.71***		10.34***	
적당한 수업 담당 시간에 대한 인식(주당)	15시간 이하	50	8.38	A	13.74	A
	16시간	39	8.33	A	13.05	AB
	17시간 이상	18	8.13	A	12.17	B
F값			1.76		4.48**	
8차 교육과정 개정시 기술·가정교과방향에 대한 인식	분리	68	7.57		12.65	
	기타	37	9.54		14.24	
T값			4.38***		0.62***	

+p<.10 *p<.05 **p<.01 ***p<.001

〈표 11〉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평균, 표준편차, N=107)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교사관련 요인	2.29	0.49
교사 자질 향상	2.46	0.90
기술, 가정 교사의 수당 지급	2.83	0.93
교사 개인의 잡무 해결	1.93	0.81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의 충분한 교원 수급	1.93	0.82
교과관련 요인	2.19	0.73
교육과정의 개정	2.61	1.18
교과서 내용 개편	2.37	1.04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확충 및 실험 실습비 확대	2.27	1.03
사회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2.56	1.27
교과시간 요인	2.22	0.56
수업 시수 확충	2.49	1.11
연수 기회 및 시간 확대	2.30	1.13
교과관심 요인	2.07	0.50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2.04	1.01
교과목에 대한 인식 전환	3.39	1.09
전체	2.19	0.41

* 응답척도 : 1=매우 그렇다, 3=보통, 5=전혀 그렇지 않다

3)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

기술·가정 교과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기술·가정 교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는 교사관련 요인이 2.29점, 교과관련 요인이 2.19점, 교과시간 요인이 2.22점, 교과관심요인이 2.07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사의 잡무 해결과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의 충분한 교원 수급이 1.93점으로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2.04점,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확충 및 실험 실습비 확대 2.27점, 연수 기회 및 시간 확대 2.30점, 교과서 내용 개편 2.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교사관련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거주지, 교사 연수 필요성,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거주지가 제주도 외 지역인 경우,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전공과목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사관련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연령,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과 8차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사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경우, 기술·가정교과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8차 교육과정 개정시 기술·가정교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

〈표 12〉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

변 수		빈도	교과관련요인		교사관련요인		교과시간요인		교과관심요인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연령	44세 이하	33	7.53	B	8.94	A	4.24	A	4.12	A
	45-49세	38	8.42	A	8.89	A	4.61	A	4.55	A
	50세 이상	36	8.81	A	9.58	A	4.44	A	4.42	A
F값			3.37*		1.00		0.85		0.78	
성별	남	22	8.59		9.00		4.82		4.68	
	여	85	8.19		9.18		4.34		4.29	
T값			0.72		0.31		1.79*		1.10	
교육수준	대졸	74	8.24		9.24		4.39		4.43	
	석사 재학 이상	33	8.33		8.91		4.55		4.24	
T값			0.21		0.81		0.65		0.62	
전공	가정계열	80	8.24		9.18		4.40		4.28	
	기술계열	27	8.37		9.04		4.46		4.67	
T값			0.27		0.31		0.62		1.20	
거주지	제주시	87	8.26		9.36		4.44		4.36	
	기타	20	8.30		8.20		4.45		4.45	
T값			0.07		2.42**		0.05		0.26	
담당 수업시간(1주일)	14시간 이하	13	7.54	A	8.85	A	4.23	A	4.31	A
	15-18시간	66	8.30	A	9.05	A	4.52	A	4.29	A
	19시간 이상	28	8.54	A	9.50	A	4.36	A	4.61	A
F값			1.00		1.30		0.57		0.36	
교사 연수 필요성	필요	92	8.29		8.98		4.42		4.34	
	불필요	15	8.13		10.13		4.53		4.53	
T값			0.29		2.14*		0.35		0.45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	유	98	8.23		9.08		4.39		4.37	
	무	9	8.67		9.78		5.00		4.44	
T값			0.62		1.01		1.57+		0.15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희망	16	7.94		8.00		4.00		3.94	
	미희망	91	8.33		9.34		4.52		4.45	
T값			0.72		2.57**		1.71+		1.29+	
교육과정 연수 횟수	1회	49	8.08	A	9.31	A	4.55	A	4.20	B
	2회	26	8.69	A	8.46	A	4.62	A	5.15	A
	3회 이상	32	8.22	A	9.44	A	4.13	A	4.00	B
F값			0.41		2.39+		3.21*		3.80**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만족	22	8.95	A	9.00	A	4.23	A	5.18	A
	보통	53	8.17	AB	9.17	A	4.51	A	4.08	B
	불만족	32	7.97	B	9.19	A	4.47	A	4.31	B
F값			1.92+		0.19		0.81		3.99**	
기술·가정 부전공 필요 인식	필요	26	8.54		9.08		4.50		4.77	
	불필요	77	8.19		9.16		4.44		4.18	
T값			0.74		0.20		0.29		1.41+	
기술·가정 교과 운영방식	한 명교사 전담	62	8.39	A	9.06	A	4.63	A	4.45	A
	영역별 분담	26	8.54	A	9.54	A	4.19	A	4.69	A
	기타	19	7.53	A	8.84	A	4.16	A	3.68	B
F값			0.61		0.43		2.99*		1.94+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	만족(12점 이하)	42	8.98	A	8.98	A	4.69	A	4.60	A
	보통(13점)	21	8.52	A	9.38	A	4.57	A	4.43	A
	불만족(14점 이상)	44	7.48	B	9.18	A	4.14	A	4.14	A
F값			4.34**		0.21		2.42+		0.36	
8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개정	분리	68	7.90		9.12		4.34		4.31	
	기타	37	8.92		9.18		4.62		4.49	
T값			2.62***		0.17		1.23+		0.60	

+p<.10 *p<.05 **p<.01 ***p<.001

각하는 경우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과관련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교과시간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 부전공 과목 연수 경험,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 기술·가정교과 운영,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과 8차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가 여성이고, 3회 이상 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한 경우, 기술·가정 교과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과시간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교과관심 요인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부전공 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기술·가정교과 운영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사가 부전공과목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1회 혹은 3회 이상 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한 경우, 부전공과목 연수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과관심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과목의 실시로 과거 가정교과와 기술·산업 교과의 통합에 따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기술·가정 교과 수업의 일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현재 기술·가정 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 기술·가정 교과 운영의 문제점 및 앞으로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을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제주도에서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서, 현재 제주도의 가정과 교사 100명 중 기술·가정을 지도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 89명(제주도 교육청, 2003)과 가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40명의 기술전공 교사들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내의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

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부전공 과목 연수를 받았지만, 이러한 연수의 필요성이나 연수내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각 학교에서는 약 1/2 정도가 기술·가정 교과를 전담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8차 교육과정 개정시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으로 분리 혹은 분담방식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현재 교과 시수의 부족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으며, 비전공 교과를 지도하면서 교사 자신의 지식부족이나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의 경우에는 기계분야의 실기를, 기술과 교사는 식생활 및 의생활 분야의 실기에 대해 가장 지도시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 비전공 분야의 실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현재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무엇보다도 입시에서 주요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술·가정교과가 현재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교과관련 요인과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연령, 학교 학급 수, 주당 담당수업시간,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적당한 수업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주당)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성별, 전공, 학교 학급 수, 주당 담당수업시간, 부전공 취득 과목, 기술·가정교과운영방식,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주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인식의 배경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교사들의 특징이 달랐지만, 재직 학교 학급 수, 담당 수업시간(주당) 및 적당한 수업 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주당) 등 학교규모나 수업시간 등의 학교특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사들은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가 기술과 가정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것과 두 교과의 내용 구성에 연관성, 체계성이 없는 것과 같은 교과관련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기술·가정교과의 문제점을 교과관련 요인과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연령, 성별, 전공,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과 취득여부,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방식 및 만족감, 그리고 8차 교육과정시 기술·가정교과의 개정방향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사의 성별, 전공, 부전공과목 연수 만

족감,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방식 및 만족감, 적당한 수업담당 시수에 대한 인식(주당), 그리고 8차 교육과정시 기술·가정교과의 개정방향 등은 기타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교사들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기술·가정교과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교사의 연령, 성별, 전공,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만족감 및 8차 교육과정시 기술·가정교과의 개정방향 등이 공통적으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전공 및 전공에 대한 인식 등이 기술·가정교과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교사들은 앞으로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교과관련 요인 중 교사 개인의 직무 해결과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의 충분한 교원수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충원이 안 되는 현실과 달리 과목담당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과관련 요인, 교사관련 요인, 교과시간 요인 및 교과관심 요인으로 구분하여 교사들의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관련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연령, 부전공 과목 연수에 대한 만족감,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 및 8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교사관련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거주지, 교사 연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시간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성별, 부전공과목 연수 경험,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 기술·가정교과 운영방식,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 및 8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개정방향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부전공과목 연수 희망 여부, 교육과정 연수 횟수, 부전공과목 연수 만족감, 기술·가정교과 운영방식에 따라 교사들의 교과관심 요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교과관련 요인의 경우 현재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만족감이나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반면, 교사관련 요인, 교과시간 요인 및 교과관심 요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육과정 연수 혹은 부전공 연수와 관련된 상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통합교과가 실시된 현재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과 담당 교사의 어려움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과 제 8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일반적 특징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일치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비전공의 교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교과가 분리 내지 분담지도가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과 시수 부족의 문제는 적절한 교과 시수의 확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가정교과가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로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높아지므로 실습시간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교과전용 교실 확보 및 실습 기자재의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가정 교과의 분리가 어렵고 현재의 부전공 연수를 시행할 경우에 부전공 과목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연수 경험이 지도에 도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전공 연수의 횟수나 연수내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교사와 기술교사가 각 각 실기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연수경험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의 문제점 중 교사의 자질이나 학습자의 관심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사들의 부단한 수업연구, 자료개발 및 자료의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짐은 물론 ICT 및 기타 여러 가지 시청각 기자재,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우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가정교과의 중요한 정책 방향과 발전 방향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술·가정교과 단원내용을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부응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 기술·가정과 전공자들이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그 성과를 교과 개발에 반영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 및 운영실태, 문제점 등이 제주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인숙(2001),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 현장 수업의 실태」, 2001 제주대학교 교육학술세미나 21세기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 곽노선(2001),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 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 변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수(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의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숙(1991),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1997),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애(1990),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순(199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통합에 따른 남녀 학생들의 학습결과 비교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옥(200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와 관련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이(199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문형(2000), 기술·가정교과로 운영할 경우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가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과목의 실시로 과거 가정교과와 기술·산업 교과의 통합에 따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제주도에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서, 현재 제주도의 가정과 교사 100명 중 기술·가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89명(제주도 교육청, 2003)과 기술·가정과목을 맡고 있는 40명의 기술전공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현재 기술·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무엇보다도 입시에서 주요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가 기술과 가정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것과 두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연관성, 체계성이 없는 것과 같은 교과관련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앞으로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교과관련 요인 중 교사 개인의 직무 해결과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의 충분한 교원수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